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48) (8/7/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5 장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 1-2 절

딤후 4:5 -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마 5:48 -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 21:4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2:3 -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 23:23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죄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 늘 깨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딤후 4:5). 당신이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를 자주 상기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마 5:48). 그렇게만 한다면, 머지않아 당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임종의 때에는 당신에게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는 엄습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수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큰 안식, 아니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계 21:4; 22:3). 당신이 늘 변함없이 열심을 내어 신실하고 부지런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행하셔서, 당신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마 25:23).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선한 소망을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일함에 빠져서 방심하여 나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롬 5:5).

2. 어떤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자주 두려움과 소망 사이를 오가다가, 어느 날은 슬픔에 사로잡혀서, 교회의 제단 앞에 엎드린 채로,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내가 끝까지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때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그 때에 알았다면, 어떻게 하였겠는가? 그 때에 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을 지금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지극히 안전하리라.” 그 사람은 즉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고, 그를 자주 괴롭히던 불안도 그쳤습니다. 전에는 미래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마음을 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롬 12:2).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선한 일들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나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확고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는 성도는 삶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속에서의 자기 정체성이다. 성도는 이에 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등등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속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목적, 비전, 역할과 직결되듯이, 영적 정체성 역시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 비전,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그는 복의 통로이며 복 그 자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건짐 받은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지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건짐 받은 자'로서 '민족을 건지는 자'가 되게 하셨다.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열 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바울에게는 직접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 자기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은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내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며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삶 전체를 고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삶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주님은 마 25 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일의 경중을 떠나 충성의 여부를 보신다. 바울도 충성을 강조했다. 고전 4:1-2 -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와 긴밀히 동행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신다. 그리고 때를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를 근원적으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큰 부르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삶에서 주님과 교제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을 작은 부르심으로 말할 수도 있겠다.

부름 받은 바울은 사역이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작은 부르심을 받았다. 가장 단적인 예로 세 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이 방문한 수많은 지역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말씀 선포, 치유, 상담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다. 바울은 그 여정 속에서 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갔다. 그러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딤후 4:6-7 -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지금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나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삶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해야 할 일은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행하는 것이다. 예배, 기도, 묵상, 찬양 등 주님과 영적 교제를 위한 삶은 때를 좇아 행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때를 좇아 행하신 것이며, 결코 때를 미루지 않으신 것이다. 은혜의 삶은 미루면 안된다. 영적 침체는 미룰 때 시작된다. 선행의 기회가 왔을 때는 선행을 행해야 하고, 섬김의 기회가 왔고 봉사의 부르심이 느껴지면 바로 그 때 해야 한다. 우리는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지금이 바꾼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3. 영어권 목회자 청빙에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내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